

최선일 박사(문화재 파수꾼)  
“잊혀진 匠인 스님 찾아  
알리는 데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16 · 17면

# 현대불교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애욕보다 큰 것이 없고  
분노보다 깊은 것이 없고  
교만보다 높은 것이 없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10월 22일) · 주간

제 1073호 2015년 12월 3일 목요일

## 교과서 내 불교서술 대폭 확대된다

### 2017년 교과서 집필 기준 살펴 보니 성과 ‘괄목’

2017년부터 적용되는 역사·도덕교과서의 불교서술이 보다 확대·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산하 ‘조계종 개편 교과서 연구위원회’의 제안이 다수 반영됐기 때문이다.

국가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의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발표에 앞서 본지가 입수한 집필 기준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삼국시대 단원에서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불교수용 사례가 자세하게 서술될 전망이다. 특히 불교가 수용되어 중앙집권 국가의 새로운 이념이며 종교로 기능하게 되는 과정과 그 영향에 대해 서술한다’고 집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삼국이 왕권 강화에 이끈 이념을 통해 반포·관등제와 함께 불교가 중앙집권체제 성립에 끼친 영향을 인정받게 됐다.

삼국의 불교수용은 현행 역사교과서에도 서술돼 있지만 단순한 언급에 불과할 정도로 미약한 수준에 불과했다. 이어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에 대해서는 외적의 침략에 대응한 측면을 유의하면서 서술하도록 해 호국불교의 특징이 잘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도 맥을 같이 한다. 더불어 고려시대의 경우 불교·유교문화의 특징과 다양성을 별도의 소단원으로 구분했다. 이 단원에서 눈에 띄는 집필기준은 ‘천태종의 성립과 결사운동·조계종의 발달에 대하여 서술한다’는 대목이다. 현행 교과서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내용으로 학생들이 한국불교의 역사적 기반이었던 양 종단의 활약을 배우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단원에서는 불교가 개인 신앙과 사회 통합 기능을 담당했으며 정치이념으로 자리 잡았던 유교와는 다른 역할을 수행했음을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대 문화의 꽃으로 평가받는 지방의 석불, 금속활자와 대장경 조판 등에 대해 다루면서 불교 문화의 다양성도 조명하도록 했다.

고려시대 불교에 대해 ‘정치·사회 지배 이념으로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교 교단이 비대화되면서 농민의 토지를 침탈하는 등 사회 병폐를 초래한 측면도 있었음을 유의한다’는 기존 집필기준은 삭제

됐다. 이처럼 개정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은 불교를 설명함에 있어 시대적 역할에 중점을 맞춰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다만 조선시대 의승군의 활약은 의병과 함께 묶여 현행 교과서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돼 아쉬움을 남겼다.

제7차 교육과정(1997년 제정) 당시 역사교과서가 ‘수군과 의병의 활약’에서 이순신 장군과 유정 스님의 영정을 나란히 실어 의승군의 공을 인정하고, ‘통신사의 파견’에서 유정 스님의 활약을 별도의 각주로 다룬 것과는 대조된다.

역사교과서와 함께 도덕교과서에 문제가 됐던 불교서술도 개정됐다. 현행 도덕교과서에서 불교사상의 특징을 △연기적 세계관 △주체적 인간관 △평등의 세계관으로 정의해 모호함을 나타냈던 부분은

### 삼국·고려시대 역할 인정

불교 특징 ‘자비의 윤리’로 의승군 조명 안 돼 아쉬움

‘자비의 윤리’로 변경됐다. 이는 조계종 측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 수용한 것으로 학생들이 불교의 인간관 및 세계관을 탐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특징은 통불교적인 관점에서 화쟁 사상과 선교 통합이 강조되도록 서술했다.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에서 종교를 다루는 단원인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는 인격신을 지칭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연·초월과의 관계’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 같은 명칭이 종교를 대표하는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의문이 남는다.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해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조계종 개편교과서 연구위원회 김경중 부위원장(동대부여중 교장)은 “불교가 억압받던 조선시대에 국난에 맞서 목숨 바쳐 나라를 구한 승려들의 활약이 조명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삼국의 불교수용 의의와 불교의 제대로 된 특징 등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사실 등이 추가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위원회가 꾸준히 활동하면서 교과서 불교서술을 바로 잡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윤호성 기자 sonic027@hyunbul.com



자비의 김치, 소외계층에게로 서울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신도들과 즐겁게 김장을 하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는 11월 21일 봉은사 경내에서 김장김치 9000포기를 담가 독거어르신 가정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했다. 이날 김장에는 봉은사 스님과 신도, 봉은사 산하기관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봉은사는 매년 독거어르신,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 등에 김장김치를 비롯해 월동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도봉서원 복원 불교 배제 논란

### 도봉구청, 12월 7일 유학자만 초청해 세미나

국보급 불교문화재 발굴 후 사업 중단… 區 재추진 나서 불교계 ‘전면 재검토’ 주장

2012년 금강령 등 국보급 불교유물 77점이 발굴돼 전면 보류된 도봉서원 복원사업이 최근 불교계와 협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또다시 일고 있어 반쪽을 사고 있다.

임성태 도봉구청 문화체육과 주무관은 “도봉구청 단독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사업 중단을 결정해도 구청 측에서는 관내 지역의 민원이라 그냥 침묵만 지킬 수는 없다. 현재 재추진 노력을 하는 것은 맞으며, 12월 7일 이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주무관은 “이번 세미나에서는 불교 관련 내용은 들어있지 않으며, 도봉서원의 가치와 서원 위치를 조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봉서원의 역사와 위상’ 등을 조명할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불

교 측 참여없이 조준호 실학박물관 학예사 등 유교계 학자들만 참석한다.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순수한 학술 목적의 세미나가 아니라 복원 타당성을 관계기관에 홍보하기 위한 유교계측의 여론몰이용 이벤트가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011년 당시 도봉구 측은 지역 유림들에게 서원 재건을 약속한 뒤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불교 유물 대거 발굴 소식을 접한 조계종 등 불교계가 서원 재건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8월 27일 문화재청과 서울시, 도봉구청 등 에 보낸 공문을 통해 “도봉서원터는 영국사 터이며 출토된 유물은 조선시대 불교 탄압을 보여주는 상징”이라며 “재건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서원을 재건할 권한을 지닌 서울시도 이미 “국보급 불교 유구가 발견돼 당장 복원 추진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문제는 도봉구가 8월 ‘도봉서원 복원사업 재추진 계획’을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 예산 45억 원도 필요하지만 정작 서울시와는 별 다른 의견 조율 없이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조준영 서울시청 역사문화재과 주무관은 “복원을 하다가 영국사로 추정되는 유물이 나와 특정 종교 유적으로 복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16년 연구용역 후 복원에 대한 입장을 정할 예정이며 연구용역에 대한 서울시 예산은 이미 배정된 상태”라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 유대호 주임도 “영국사와 도봉사 존재를 배제한 도봉서원 복원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또한 이에 앞선 철저한 연구 및 조사야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희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유교 편만 들어 서원을 재건추진하기에는 불교계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봉서원 터에서 이렇게 불교 유물이 쏟아진 데는 ‘슬픈 역사’가 깃들여 있다. 고려 때까지 이 자리에는 원래 영국사(寧國寺)라는 사찰이 있었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 사찰은 폐사됐고, 1573년(선조 6년) 사람의 거두 정암 조광조(1482~1519)를 배향한 도봉서원이 들어섰다. 임진왜란으로 전소했다가 1608년 중건된 후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없어져 내기까지 약 260여 년 간 유지됐다.

김주일 기자 kimji217@hyunbul.com

## “민주화 거목 서거 애도합니다”

### 자승 스님, 김영삼 前 대통령 애도문… 23일엔 빈소 조문

김영삼 前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애도의 뜻을 밝혔다. 자승 스님은 11월 22일 발표한 애도문을 통해 “김영삼 前 대통령의 서거에 애도의 마음을 함께 합니다”면서 “더불어 슬픔에 잠겼을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前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의 거목이었고, 문민정부를 출범하여 한국사회에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평생 지향하고자 했던 민주화와 자유, 평등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이와 함께 자승 스님과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11월 23일 오전 8시 고인의 빈소를 찾아 분향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자승 스님은 추도문을 통해 “김 前 대통령은 어려운 시절 우리나라와 국민의 큰 나무였으니, 그 그는

아래서 나라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에게 청정한 지혜의 광명을 열리게 했다”면서 “민주화에 기여한 공덕은 미래를 열어 주는 바탕이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다시금 어려운 시절에 민주화를 갈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으로 돌아오신 것, 그들의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니, 언제나 모두에게 지혜의 힘이 되어 달라”면서 “명복을 비는 수많은 추모의 마음이 이렇듯 모아졌으니, 민주화와 자유평등의 가치가 이 땅에 실현되고 모두 함께 향기로운 자취에 감응할 것”이라고 추모했다.

한편, 11월 26일 열린 김 前 대통령 영결식에서는 종교 의식 가운데 불교 의식이 조계종 의례위원회의 위원 화암 스님 집진으로 봉행됐다. 불교 의식은 불교 의례 전통 방식에 따라 거불, 청초, 반야심경 봉독, 극락왕생 발원 등으로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m01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중앙총무기관 교역직 스님들은 11월 23일 고인의 빈소를 찾아 분향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 전국 사찰·선원 동안거 결제

### 총림 등 26일 입재법회

전국 주요 사찰과 선원이 동안거 결제에 들어갔다.

동안거 결제일을 맞은 11월 26일 전국 총림과 선원은 일제히 입재법회를 열고 3개월 간 동안거의 시작을 알렸다.

조계종의 경우 매년 전국 100여 개 선원에서 2200여 명의 수좌스님들이 방부를 들어 수행에 매진한다. 일관 사찰 스님과 신도들도 안거 기간 동안 함께 정진하게 된다.

이에 앞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동안거 결제 법어를 통해 “모든 반연을 끊고 사비장단을 모두 내려 놓고 경성하고 말겠다는 확고한 대심심과 불타는 대웅맹심을 내어 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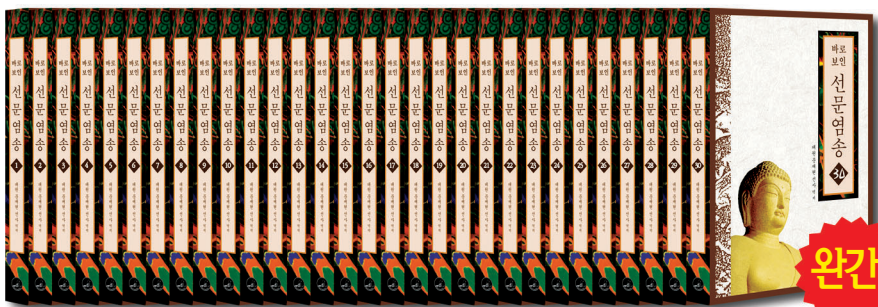
절하게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각자의 화두를 청기고 의심하고 청기고 의심하여 번뇌와 망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쏟아야 한다”고 설했다.

이어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안거제도가 제대로 이어오고 있는 곳이 없으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라며 “부처님의 은혜와 시주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일각도 방일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총림·총림 방장 법어 8면)

**사령**  
윤 호 성  
명)편집국 취재부 기자  
2015년 11월 16일 부

##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30권 드디어 완간!!



완간!

### 선문염송 30권, 15년만에 완간하다!!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기까지 선문의 전 공안을 총망라한 세계 최대 공안집, 선문염송 전30권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역저에 의해 15년간의 대장정 끝에 드디어 완간되었습니다.

### 세계 최초로 1,463칙 전 공안에 착어하다!!

1칙 도솔래의로부터 1,463칙 노파암자소각 공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칙에 공안의 참뜻을 비추어 볼 수 있는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습니다.

###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공안의 교과서!!

명안중사의 눈으로 꿰뚫은 바른 번역에 살활자재한 착어(着語)와 송(頌)을 더하였으니 공안을 바르게 참구하게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공안의 교과서>라 할 것입니다.

· 도서출판 문젠 031-534-3373 / 010-4520-7963  
www.zenparadise.com



###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서 - 74권 36종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 영원한현실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산에 찻는 희다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반야심경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범용선사 심명 / 주머니 속의 심경
- 바로보인 법성계 / 달다 / 기우몽동가 / 초발심자경문 / 방거사어록
- 실증설 / 하택신회대사 현종기 / 불조정맥 3개국어판
- 바른 불자가 됩시다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 108진참회문 3개국어판
-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 마음대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 화두 3개국어판 / 바로보인 간당론 /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 바로보인 유마경 / 실증설 5개국어판 /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3개국어판